

1. 법무사에 도전하게 된 계기

직장 생활 25년. 남들이 보기에 안정된 궤도에 올랐을 때, 저는 '인생 후반기'를 고민했습니다. 조직의 타이틀이 아닌, 나의 이름 석 자로 온전히 서고 싶다는 생각이 저를 법무사 시험이라는 새로운 도전으로 이끌었습니다.

비법대 출신으로서 느꼈던 막막함보다 컸던 것은, 정년 없이 평생 현역으로 뛸 수 있다는 자격증의 매력이었습니다. 그렇게 2023년 9월, 저는 법무사가 되기 위한 첫걸음을 떴습니다.

아무런 베이스없이 직장생활과 병행하며 시작하였기에 오랜 기간 최다 법무사 합격생 배출이라는 박문각의 올패스 커리큘럼은 고민없는 선택이었습니다.

2. 수험 생활에 임하며 지킨 원칙 : 생활 패턴 단순화와 선택적 집중

수험기간동안 공부나 운동 등 저의 최우선 순위에 맞춰 그 외의 것은 모두 제 에너지 소비나 관심 대상에서 제거한 단순한 생활패턴을 유지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길다면 길 수 있는 수험생활중에서의 저녁 한 끼 식사 약속, 또는 주말을 이용한 짧은 여행 등도 모두 자제했습니다. 생활 패턴이 한 번 깨지면 복귀하는 데 예상보다 많은 시간이 소모된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았기에, 루틴을 지키는 데 집착했습니다.

또한, 최우선 순위에 대한 저의 집중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면 교재, 문구류, 학습 도구 등 필요한 투자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쾌적한 환경과 도구가 주는 작은 차이가 결국 수험 생활의 질을 결정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3. 1차 시험: 무심한 일상속에서 만드는 작은 차이와 강력한 자기 암시

비법학도인 저에게 박문각의 커리큘럼과 교수님들의 지도는 절대적인 로드맵이었습니다. 철저히 학원의 흐름에 저의 공부 진도도 맞추었습니다. 1차, 2차 시험 모두 공부한 지 이미 좀 되어서 과목별로 구체적인 내용이 생각나지는 않고, 다만 그 과정속에서 교수님들이 해주신 특별한 조언들이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처음 접해보는 상법 시간, 하영태 교수님이 하신 "그냥 제가 하라는 대로만 하시면 됩니다"라는 말씀에 비단 상법만이 아니라 다른 과목에서도 완벽함에 대한 욕심과 불안함을 버리고 교수님들이 보라고 하시는 내용과 방법대로 공부에 임할 수 있는 심리적 안전장치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공탁법 강의하실 때 이천교 법무사님이 인용하신 "성공은 무심한 일상 속에서 만들어지는 작은 차이에서 온다"는 말씀은 긴 수험기간동안 힘들 때마다 항상 머릿속에 떠오르는 응원이자 동기부여가 되었습니다.

부동산등기법 김기찬 법무사님의 조언대로 1차 때부터 미리 저의 '법무사 직인'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2차 시험 끝날때까지 매번 교재와 답안지마다 제 이름이 새겨진 직인을 찍으며, 훗날 개업하여 서류에 도장을 찍고 있을 제 모습을 그려보았습니다.

학원의 커리큘럼을 따라가되, 시험 전 2개월 전부터는 강의외 매일 전 과목 기출문제를 오답 위주로 반복해서 풀면서 복습을 하였고, 마지막 1주일엔 박문각 모의고사 시험지를 다시 하루에 하나씩 시간에 맞게 풀어보는 방법으로 실전 감각을 끌어올렸습니다.

4. 2차 시험: 무조건 끝까지 완주

1차 합격자 발표후 시작된 2차 준비는 한마디로 손과 엉덩이로 버텨내는 끈기의 싸움이었던 것 같습니다.

"전문가의 통찰 한마디가 내 개인 공부 1시간보다 귀하다"는 믿음을 항상 가지고, 민법, 민사소송법의 이혁준 교수님, 형법 오상훈 교수님, 형사소송법 김영환 교수님, 부동산등기법 김기찬 법무사님, 민사서류작성 이천교 법무사님까지, 전문가들의 모의고사, 정규강의, 보강, 특강 등 시험 예상과 출제 경향, 문제 해설 등을 하나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 학원 커리큘럼 마지막 날까지 모든 강의를 사수했습니다.

모의고사 준비는, 예비 및 1순환때까지는 민법, 민사소송법 사례모음집을 매일 아침 두 개씩 필사하면서, 케이스의 전형적인 구성과 케이스를 읽으면서 무엇을 물으려고 하는 것인지 질문을 스스로 예상해 보는 연습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2순환때에는 배점당 쟁점 도출 및

구성에 좀 더 치우쳐 생각했고, 3순환 때에는 제가 쓰기에 편한 문장과 표현으로 답안지를 시간 안에 충실하게 쓰는 것에 더 집중했습니다. 아는 문제라면 좀 더 충실하게 쓰려는 욕심에, 모르는 문제라면 쟁점 사이에서 우왕좌왕하다가 시간배분이 늘 큰 문제였습니다.

3순환 들어서, 형법 오상훈 교수님의 "문제를 몰라도 백지를 내지 마라"는 조언과 민사서류 이천교 법무사님의 "흠런 칠 생각을 하지 말고 안타만 치라"는 말씀을 듣고, 아는 문제는 흠런이 아닌 2루타 정도만 되도록 방어적으로 쓰고, 모르는 문제는 틀린 쟁점이라도 논리적으로 써서 채점자가 1점이라도 줄 수 있는 근거를 만들자는 원칙을 시험 당일 제가 지켜야 할 1원칙으로 계속 되뇌이며 실전에 적용했습니다.

부동산등기법 김기찬 법무사님은 3순환에서 어려운 문제만 골라내셔서 당시에는 매일 준비하기 힘들었지만, 그것이 실전에서의 근육을 키워 주신 것이 결과적으로 입증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민법시험에서 모두 난감한 문제에 당황하고 있을 때에도, 시험장에서 끝까지 집중을 잃지 않게 조언과 응원해 주신 말씀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마무리를 위해, 시험 3개월 전부터 학원의 2순환 및 3순환 모의고사 수업 이후, 전 과목에 배점에 따른 일주일 공부 시간을 비율적으로 할당하고, 매일 조금씩 모든 과목을 회독 중심으로 복습하였습니다. 젊지 않은 나이라 암기력과 집중도가 떨어지다 보니, 30분 단위로 공부시간 단위를 구성하였고, 한 과목을 집중 정리하고 다음 과목으로 넘어가는 방법보다 모든 과목을 조금씩이라도 자주 보면서 최대한 감을 유지하여야 겠다는 생각에서였습니다.

5. 맺으며

지금 되돌아보니,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법무사 시험은 정말 1점 승부인 것 같습니다. 이 글을 보시는 대부분의 수험생은 모두 합격권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시험당일 합격권에서 멀어질 수 있는 변수를 최대한 통제할 수 있도록 평소에 어떻게 훈련하는 것인지가 비법학도 초심자였던 저에게는 합격의 관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합격수기가 한 분에게라도 도움이 되어 합격으로 가는 길에 도움이 된다면 더 할 나위없는 보람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